

# 셀 모임 순서지 (2026년 3월 셋째주)

## Welcome - 아이스 브레이크

☞ 내 안의 '겨자씨' 찾기: 지금 내 삶에서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, 소중하게 여기며 키워가고 있는 '작은 시작'(예: 매일 5분 기도, 친절할 말 한마디, 작은 습관 등)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.

## Worship - 찬양

☞ 세상 모든 민족이, 많은 사람들

## Word - sharing

### 1. 주일 설교 나누기

☞ 주제: 하나님 나라의 특징 (마가복음 4:21-34)

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 열광하지만,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예수님은 실망과 회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.

**첫째, 하나님의 나라는 씨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**

씨를 뿌려 놓으면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 안의 생명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. 우리 안에는 '복음'이라는 생명의 씨앗(예수 그리스도)이 있습니다.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. 내 안의 예수 생명이 나를 승리로 이끄심을 믿어야 합니다.

**둘째,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크게 자랍니다.**

겨자씨는 1mm의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, 심긴 후에는 2~3m의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의 안식처가 됩니다.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, 결국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.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, 하나님의 나라(통치)는 반드시 자라나고 확장됩니다.

**셋째, 하나님의 나라는 큰 열매를 맺습니다.**

현실의 초라함에 매몰되는 자는 불평하지만, 믿음의 사람은 미래의 부흥을 바라봅니다. 나 한 명의 작은 섬김과 순종이 가족을 구원하고, 교회를 살리며,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숲이 될 것입니다. 내 마음과 시간, 물질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천국이 되어갑니다.

## 2. 적용

- 1) 내 삶에서 '겨자씨'처럼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포기하고 싶거나 낙심했던 영역은 무엇입니까?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확신은 무엇인가요?
- 2) 내가 뿌린 작은 복음의 씨앗(섬김, 기도, 위로)이 장차 어떤 '큰 나무와 그늘'이 되기를 소망하시나요? 구체적인 기대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.

## Work - VIP 나누기 :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

☺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

1.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현실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, 내 안의 예수 생명으로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.
2. 3월에 있을 특별새벽집회를 통해 모든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.
3.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이 땅의 교회가 되었듯,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안식처(그늘)가 되게 하옵소서.

### 세상 모든 민족이

(원제: 물이 바다 덮음같이)

고형원

세상 모든 민족이 - 구원 얻을 때까지 - 쉬지 않으시는 - 하나님 -  
 주의 사랑 가지고 - 우리 이 세상에 - 주따르게 하소서  
 세상 모든 육체가 - 주의 영광 보도록 - 우리 부르시는 - 하나님 -  
 주의 손과 발되어 - 세상을 치유하며 - 주 섬기게 하소서  
 물이 바다 덮음같이 - 여호와 의 영광을 - 인정하는 것이  
 온 세상이 득하리라 -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 
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-  
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 
 우리는 - 들게되리 온세상이 득한 승리의 - 함성

### 많은 사람들

(원제: 난 예수가 좋다고)

김석균

1. 많은 사랑 - 받들 - 창된 건 리를 모른 채 -  
 2. 무거운 짐 건가 - 다 - 내게 - 로 오라 -  
 3. 형제 - 자매여 - 창된 해 복을 찾거든 -  
 주님 곁을 떠나 갔지만 - -  
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- -  
 예수님을 만나 보세요 - -  
 내가 만난 주님 - 은 - 참 사랑 - 이었고 -  
 이길만이 생명의길 - 참 복된 - 길이라 -  
 그분으로 인하여 - 참 평안을 얻으면 -  
 건리이고 소망이었소 - -  
 항상 내게 돌려 주셨소 - -  
 나와 같이 고백 할 거요 - -  
 난 예수가 좋다고 - -  
 난 - - 예수가 좋다고 - -  
 주를 사랑한다면 - 베드로 고백처럼 -  
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오 -